특별기고

박성천

친수구역 조성, 이젠 지혜 모을 때

나이가 지긋한 동네 어르신들의 말씀에 의하면 오래전의 영산강은 맑은 물에서만 산다는 은어와 재첩이 많았고 황포돛배가 영산강을 넘나드는 '살아 숨쉬는' 강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한가. 자정능력을 상실해 식수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며, 생태기능을 상실한 채 우리의 애물단지가 됐다.

영산강의 아름다운 모습을 되돌려주고자 하는 마음은 민·관·정 모두의 동일한 목표이자 진실한 마음이다. 그리고 영산강의 과거 명성을 되찾는 길에 바로 친수구역 활용이라는 이정표가 있다.

현재 전남 지역에서는 영산강의 이수(利水)와 치수(治水) 능력 증대를 위한 강정비사업이 진행중이며,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사업에 대한 찬·반 논쟁과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됐으나, 법원의 판결로 이에 대한 이해의 발판이 어느 정도 마련된 듯하다.

이제 강 정비사업에 대한 논쟁의 과정을 거쳐 완공된 이후를 생각하는 성숙한 단계로 진입하는 분위기이다. 이제 사업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수변지역의 생태와 환경을 보존하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때다.

때마침 지난해 12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천의 수질, 생태와 환경을 잘 보전하고 친수구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해 지역의 관광과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므로 영산강의 옛 모습 복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슬기롭게 열어나가기 위한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많은 국책사업 추진을 통해 체득한 갈등해결의 묘를 발휘해야 한다. 고속도로 및 철도건설, 원전수거물 센터 유치, 간척지 개발 등 다양한 국책사업이 진행되면서 사회 내 많은 갈등과 분쟁을 겪었다. 그 과정에서 갈등관리의 기술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체득됐고, 슬기롭게 극복한 사례들이 많다.

이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 새로운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갈등의 벽을 넘어 새로운 기회를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을 때라 생각한다.

둘째, 강 정비사업으로 인해 홍수피해와 같은 재해가 경감될 수 있게 된 지금 환경과 생태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친수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나아가야 한다. 생태와 환경을 무시하는 무질서한 난개발은 막아야 한다. 친수구역이 문화와 관광이 살아 숨 쉬는 랜드마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미국, 싱가폴, 영국, 독일 등 외국의 친수구역 조성이 좋은 사례이다.

셋째, 개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윤리적인 주민 참여가 필요하다. 과거 부동산 투기, 양보 없는 사익추구 행동 등으로 개발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이 발생했고, 그 결과 불균형·불균등한 개발이 이루어 진 곳이 많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친수구역 개발은 국가하천으로부터 양안 2㎞ 범위 안의 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과거 개발사업의 부작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올바른 인식, 그리고 도덕적 자제가 필요하다.

친수구역 개발은 과거 홍수와 가뭄, 치수와 이수에서 더 나아가 생태와 환경, 관광과 레저, 문화를 아우르는 패러다임의 변화이다. 또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제 마구잡이식 개발을 방지하고, 친수구역 개발을 통한 이익이 하천정비 및 관리 등에 재투자되는 선순환의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하천은 우리 모두의 재산이므로 지역주민 모두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을 때이다.

친수구역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의 기폭제가 되고 다른 지방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지역민들의 협조와 이해가 필요한 때이다.

〈동신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종교칼럼

서달원

물을 물 쓰듯이 하다가 …

한 달 잘 지내셨습니까? 토끼의 해, 벌써 두 번째 달이 끝나갑니다. 올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뉴스를 통해 지역에 따라 90년이 넘게, 그러니까 근 100년 만에 이런 추위를 맞는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이제는 추위가 많이 가시고 봄볕이 내리쬐는 날들이 많습니다만, 아직 봄이 온 것은 아니니 추위에 감기 들지 않도록 건강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다음달은 춘삼월이니 겨울이 가기 전에 눈 이야기 하나 해보고 싶습니다.

소록도는 한겨울이어도 눈이 거의 없다고, 설혹 눈이 내리더라도 낮에 햇볕이 반짝 나면 금방 녹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겨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른 곳도 그러겠습니다만 이번 겨울 이곳에도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바닷가라서 체감온도도 만만치가 않네요. 눈이 소복이 내린 날 아침, 자동차 운행이 어려워 1번지(직원성당)에서 2번지(환우분들 성당)까지 장화 신고 걸어갔다가 미사 마치고 오는데, 병원 의료부장님이 그럽니다. "올 겨울은 서 신부님 때문에 하느님께서 은총(눈)을 많이 내려주시는 것 같다"고! 글쎄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은총(눈과 추위) 덕분에 사제관에는 수도관이 얼어버렸습니다. 다행히 욕조에 받아놓은 물로 변기 물은 해결을 합니다만, 온수가 나오지 않으니 씻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람을 불렀습니다만 어디에서 이상이 생겼는지 찾아내질 못하네요. 그렇게 며칠을 살다 보니 금방 얄팍한 생각이 듭니다. '겨울 동안만 교육관으로 옮겨서 지낼까?' 교육관에는 온수가 나오거든요! 하지만 버텨봅니다.

신자분들이 사회생활하면서 겪는 어려움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고, 손쉽다고 자꾸 편한 것들에 맛들이다 보면 나중엔 저 자신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입니다. 누가 보면 지질이 궁상, 의미 없는 일에 사서 고생한다고 하겠지만, 그렇게 지내다 보니 깨닫는 것도 있습니다.

물을 물 쓰듯이 한다고, 항상 흔하고 쉽게 접하던 것들(물도, 숨 쉬는 공기도)이 없으니, 그 흔한 것들이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 새삼 깨닫습니다. 그러고 보면 없다는 것, 부족함, 결핍은 그 자체로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 부족함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있는 것, 그것이 물건이든, 사람이든,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 은혜로운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의료부장님 말씀이 맞는 말 같습니다. 하느님은 저를 이곳 소록도로 불러주시고, 정말 감사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깨닫도록 눈(은총)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생활하다 보면 드문 행운을 좇다가 주위에 널린 행복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커다란 행운도 좋습니다만, 작은 행복에 마음 모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춥습니다! 다음달에 소식 전할 때는 따뜻한 봄날, 새로운 은혜 나눌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건강하세요!

〈소록도성당 주임신부〉

기고

임내현

이제 사람에 투자할 때다

설을 앞둔 지난달 29일 한국예술종합학교 영화과 출신으로 단편영화 '격정 소나타'로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에서 수상한 전도유망한 최고은 시나리오 작가가 지병과 생활고로 생을 달리했다. 이웃집 문에 서른 두 살 젊은이가 마지막 남긴 유서가 "쌀이나 김치를 조금만 더 얻을 수 없을까요. 번번이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쪽지였다. 영화산업 종사자 월 평균 오십만원으로 삶을 어금니로 버티다 생을 마감한 것이다.

"도토리 이건 먹을 수 없는 껍데기(중략) 이슬만 먹고 살수는 없어 도토리 싫어" 원맨밴드 달빛요정역전만루 홈런 이진원씨의 '도토리' 노랫말이다. 도토리는 싸이월드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머니다.

저작권자와 유통업체간에 분배비율이 3 : 7인데다가 음원사용료가 일정액에 미달하면 도토리로 노동의 대가를 지급받는단다. 그래서 먹을 수도 없는 껍데기 도토리가 싫다는 이진원씨는 결국 지난해 11월 초 뇌경색으로 쓰러졌고 30시간동안 아무도 찾아주는 이 없어 서른일곱의 나이로 생을 달리했다.

두 젊은이 모두 열정과 끼가 넘치는 2011년 대한민국의 청년들이었지만 아무도 그들을 구해주지 못했다. 신자유주의 무한경쟁의 거친 바다에 조각배로 첫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이른바 88만원 세대인 두 젊은이들의 꿈을 우리 사회 어느 누구도 지켜주지 못했다.

이것이 G20에만 어깨를 맞추려고 몸부림치는 2011년 대한민국의 국격의 현주소이다. MB정부는 잔이 넘치면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간다는 낙수효과를 기다리라고만 한다.

온종일 흘러내리는 물방울을 기다리다가 산 입에 거미줄치고 한 줌의 재가 돼 버린 두 젊은이의 휑한 눈망울이 아른 거려 가슴에 뜨거운 것이 치받쳐 온다.

이번 최고은 작가의 고달픈 생의 마감을 스스로 선택한 직업세계의 치열한 시장 경쟁에서 낙오된 한 문화예술인의 애달픈 문제로만 잠시 애도하다가 잊어서는 안된다. 시대의 변혁은 아주 사소한 작은 사건 하나로 시작된다고 한다. 이번 최고은 작가의 사례를 88만원 세대 붕괴 대지진의 사전 징후로 보고 정부당국과 우리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공동체 구축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제 사람에 투자할 때다.

OECD국가 중 최고 도로 포장율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에서 토목 건설 비용의 10분의 1만 사람에 투자해도 다음 세대에 물려줄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 국민으로서 태어나기만 하면 인간의 가장 고상한 가치를 마음껏 실현할 수 있는 대한민국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특히 아시아 문화예술중심도시로 발돋움 하려는 광주에도 최고은 작가와 형편이 비슷한 문화예술인이 많이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이다. 돌만 남은 그리스의 유물들은 그 곳 안에서 학구열과 창작열을 불태웠던 사상가와 예술가가 아직까지 기억되기에 가치가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걸출한 문화예술인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이제 사람에게 투자할 때다.

〈변호사·사단법인 광주전남발전정책포럼 이사장〉

성인 남성 중성지방 과다 주원인은 복부 비만 탓

성인 남성중 자신의 중성지방 수치를 알고 있는 사람은 얼마 없다. 중성지방이 왜 문제가 되고 한국인의 수치는 어느 정도일까?

평소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 남성조차도 심한 지방간 판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 원인은 복부 비만에 따른 중성지방 과다인데, 이는 혈액에 녹아든 지방이 간에 쌓인 탓이다.

중성지방이란 콜레스테롤과 함께 우리 몸의 지방을 구성하는 성분으로서 신체의 중요한 에너지원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 중성지방이 과다할 경우 나쁜 콜레스테롤은 높이고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은 떨어뜨리므로 심장병이나 뇌졸중의 위험을 크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중성지방 수치가 한국인에게 유독 높게 나온다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중성지방은 숫자로써 나타내는데 정상 수치는 150 미만이고, 150에서 200 사이는 주의 필요, 200이 넘으면 위험 수준이라고 한다.

한국 사람들은 체중이 많이 나가지 않아도 상대적으로 복부 비만이 더 많고, 탄수화물이 많은 것이 원인이다. 중성지방을 줄이려면 지방질 섭취 외에도 주식인 밥의 양을 줄이고, 과음을 삼가고, 정기적인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한다.

특히 뱃살은 중성지방의 저장고라고 하니 복부 비만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수이다.

▲김대환·광주시 서구 용두동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사설

역대 군수 3명 낙마한 화순군 '불명예'

전완준 화순군수가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는 24일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 군수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군수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군수직을 내놓게 된 것이다.

전 군수의 낙마 소식이 알려지자 화순군은 충격에 휩싸였다고 한다. 역대 군수 3명이 줄줄이 사법처리됐고 이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과 반목으로 지역의 명예는 물론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게 됐다.

사실, 화순군수 선거는 임호경 전 군수와 그의 아내 이영남 전 군수, 전완준 군수와 그의 형 전형준 전 군수 등 집안 간에 반목과 갈등으로 점철된 지방선거 사상 초유의 악순환을 가져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로 인해 정치에 대한 혐오와 불신, 무관심이 확산됐고 지역의 이미지마저 급격하게 추락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화순군의 불명예는 이들을 당선시킨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모두가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한 데다 앞으로 치러야할 4·27 보궐선거까지 포함하면 3차례에 달해 지방선거에서 유례없는 진기록을 기록하는 셈이다.

보궐선거로 인한 비용만 수십억 원에 이르고, 이 또한 주민의 혈세로 충당하게 되는 것이다. 화순군의 행정이 제대로 돌아갔는지도 의문이다. 선거 때마다 공무원들의 줄서기와 눈치보기가 극에 달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노릇이다.

민주당도 화순군이 이 같은 지경에 이르게 된 데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공천 과정에서 두 집안 간 알력의 단초를 제공했던 게 민주당이 아닌가. 이제 더 이상 악순환은 없어야 한다. 주민들이 나서 자존심과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 민주당도 분란을 자초해선 안 된다. 오는 4·27 보궐선거를 예의 주시할 것이다.

경제 실핏줄 자영업 몰락 두고만 볼건가

이명박 정부 들어 서민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생계수단인 자영업 몰락이 가속화되고 있다. 슈퍼마켓이나 음식점 등 골목상권이 무너지면서 서민들의 삶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말 현재 광주·전남 자영업자는 42만7000 명으로, 3년 전에 비해 4만3000 명이 줄었다. 10명 중 1명꼴로 문을 닫은 셈이다. 특히 최근 1년 사이에 무려 3만3000 명이 감소했다. 광주의 경우는 10개월 만에 2만 명이 줄었다. 자영업의 폐업과 파산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 자영업의 붕괴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된데다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확장 등이 가장 큰 원인이다. 무엇보다 골목상권을 유린한 대기업의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대형 프랜차이즈가 직격탄이 됐다.

자영업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 구조조정이 상시화되면서 포화상태다. '괜찮은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하고, 건설과 조선 등 지역 주력산업이 줄줄이 무너진 광주·전남의 자영업 영업환경은 열악하기 그지없다.

따라서 경쟁력이 취약한 자영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자영업의 위기를 시장에만 맡겨 둘 수는 없다. 가계 하나로 생계를 꾸려가는 자영업자가 몰락할 경우 내수경기 침체-서민 가계 파산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민생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제정책의 방향을 대기업 위주에서 중소기업과 자영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자영업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에 나서야 한다. 체인점 영업체제의 개선,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동네상권 진입 차단 등 미시적인 대책도 시급하다.

자영업은 우리 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한다. 서민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생계수단이기도 하다. 자영업 몰락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無等鼓

뱅크런

혐의가 있는 두 죄수에게 서로 논의할 수 없는 상황을 주고 협의 부인과 자백이라는 두가지 선택권을 준다면 죄수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 답은 모두 자백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게임이론의 하나인 '죄수의 딜레마' 때문이다.

두 죄수 모두 죄를 부인하면 무죄 석방이지만 공범이 자백하면 자신은 혼자 중형을 받게 된다. 이 상황에서 두 죄수는 모두 죄를 부인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하지만 검사가 두 죄수를 따로 격리해 심문할 경우 상대방이 자백하면 자신이 중형을 받을 수 있다는 딜레마에 빠진다. 결국 현실적으로 두 죄수 모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죄를 시인하는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된다. 불신으로 최선책을 선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요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뱅크런(은행의 연쇄적인 예금인출사태)에서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면서 "안심하라"고 한 말이 오히려 예금자들을 죄수의 딜레마에 빠지게 해 예금인출사태에 불을 지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뱅크런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영업정지는 없다"고 말하면서 부실 저축은행 명단 10곳을 발표했다. 대상에는 오너가 호남 출신으로 업계 1위인 부산저축은행(계열사 포함)이 5곳, 목포가 본점인 보해저축은행 등 6곳이 우리지역과 관련이 있다. 돈을 인출하지 않으면 이란 전제를 달았지만 이같은 발언은 뱅크런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정보가 단절된 죄수처럼 예금자들이 자신의 돈을 지키기 위해 뱅크런을 선택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다. 책임은 '양치기 소년'식 발언으로 불신을 조장한 정부에 있다.

저축은행 예금자들의 대다수는 서민이다. 뱅크런 사태를 보면서 한국전쟁 당시 '서울 사수'를 외치며 국민들을 안심시킨 후 철교를 끊고 대전으로 피난간 이승만 정권이 자꾸 오버랩된다.

/장필수 사회부차장 bungy@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편 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정 경 부 2200-612 체 육 팀 2200-697
〈대표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대표FAX 222-4267〉 전 산 팀 2200-685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7-9500〉
디 자 인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기획사업국 2200-555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